

'3기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막 올랐다

목포新安비치호텔서 '개강식' 성황
방송인 조영구 '열정·기적' 주제 강연
이경수 본보 대표 "지식공동체 실현"

광주매일신문이 전남 서부권의 중심 도시 목포에 개설한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가 제3기 개강식을 갖고 1년간의 교육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2일 오후 목포新安비치호텔에서 이경수 대표이사와 원우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경수 대표이사는 개강식에서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는 지식공동체를 꿈꾼다"며 "지난 1~2기에 이어 3기에도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CEO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지역의 새로운 경제 트렌드 등 지식 향유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매일신문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한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는 등 서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방송인 조영구씨는 '2%의 열정이 기적을 만든다!'를 주제로 사람의 마음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2일 오후 목포新安비치호텔에서 이경수 대표이사와 원우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전남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을 갖고 1년간의 교육 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을 사로잡는 소통법과 철저한 자기관리 노하우 등을 공개했다.

조씨는 강연 전 노래를 부르며 원우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는 등 함께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조씨는 "꿈을 품고 도전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며 "오늘 강연이 여러분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 글로벌리더스 아카데미는 전남 서부권

에서 활동하는 기업체 CEO와 임직원, 각 단체의 관리자, 열정적인 지식 탐구를 지향하는 사업가, 청년세대 등이 참여하는 학습·교류의 장이다.

기획 특강을 통해 원우들의 지식과 리더십 등 역량 강화에 힘을 예정이며 골프·트레킹 등 각종 원외 활동과 광주매일신문 주최 문화행사에도 폭넓게 참여해 인적 네트워크 확장에도 이바지한다.

강의는 11월 중강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식사 후 오후 7~9시 펼쳐지며 ▲관대중 교수(4월 16일) ▲탁현민 기획자(4월30일) ▲정운호 마술사(5월14일) ▲박진영 교수(5월28일) ▲한다혜 박사(6월11일) ▲김봉중 명예교수(6월25일)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깊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눈다. /목포=정해선 기자



제39회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 성료

전남소방본부는 5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39회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가 지난 30일까지 3일간 전남소방학교 등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남 지역 각 소방서 대표 선수단이 참가해 화재·구조·구급 등 분야별 전문 기술과 현장 대응 능력을 겨뤘다.

치열한 경쟁 결과, 분야별 1위는 ▲구조 분야 화순소방서 ▲화재조사 분야 영암소방서 ▲화재진술 분야 진도소방서 ▲구급 분야 곡성소방서 ▲최강소방관 무안소방서 ▲생활안전 분야 나주소방서가 각각 차지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대-광주광역시치매센터 업무협약

광주대학교는 "최근 교내 행정관 6층 교육혁신지원실에서 지역사회 치매극복과 인식개선 협력을 위해 광주시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치매 예방 교육 운영 및 치매 파트너 양성을 위한 교육, 대학생 참여 기반 치매 인식개선 활동 및 지역사회 치매극복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RISE사업 연계를 통한 대학-지역사회 협력 활동을 펼치고, 치매 관련 교육, 봉사 및 현장 참여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일선 센터장은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늘 열정적인 광주대학교와 협약을 계기로 긴밀한 치매 예방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치매로부터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소재한 남구는 실버케어와 관련한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 조성에 광주대의 교육 인프라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욱 기자

목포농협, 2025년 지도사업대상평가 '우수'...유공 표창 수상

농산물 판매 기반·농가소득 증대 기여
종합업적 평가 '전국 1위' 최우수상도

목포농협이 농업인 실의 증진과 현장 중심 지도사업 성과를 인정받으며 전국 최우수 농협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5일 목포농협에 따르면 지난 2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2025년 지도사업대상평가' 시상식에서 우수 농협으로 선정돼 '지도사업 활성화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도, 영농지도 기반 구축, 농업 경영비 절감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농협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평가다.



목포농협은 ▲영농 자재 적기 공급 및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인 맞춤형 영농 교육과 신기술 보급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확대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17년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유통점 개점에 이어 2024년 1월 북항점을 추가 개점하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주목

받았다. 또한 지난해 총 830대의 농기계 수리를 지원하고 약 8천300만원의 수리비를 보조해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목포농협은 종합 경영분야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목포농협은 지난 3월10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2025년도 종합업적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정수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합원 중심의 실익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 '느린학습자 부모교육'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은 지난 3일 '느린 학습자의 이해 및 건강한 소통방법 알기'를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며 보호자들이 아동의 행동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참여한 보호자들은 기다림과 공감의 태도가 아동의 정서 안정과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소통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강남 단장은 "경계선 지능아동(느린학습



자)은 각자의 속도에 맞는 이해와 지지가 더해질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보호자들이 아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가정에서의 소통을 보다 건강하게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장성교육지원청, 돌봄 운영 역량강화 연수

장성교육지원청이 지역 초·중·고등학교 돌봄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5일 장성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연수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 통합 흐름에 대응하고, 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2026학년도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변경·강화 사항 ▲센터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방향 ▲운영 길라잡이 활용 방안 ▲방과후학교 정례회 항상 방안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장성=김문태 기자



이번 연수는 현장 실무 중심의 사례 공유와 질의응답을 통해 업무 담당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장성=김문태 기자

전남도-여순유족, 제주4·3 추념식서 위로·연대

전남도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유족회와 함께 지난 3일까지 이틀간 제7주기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 피해의 아픔을 나누고 상호 공감과 연대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형제 사건'이라 불릴 만큼 역사적 맥을 같이하는 여순사건과 제주4·3 유족 간 위로를 건네고 교류하는 시간이었다.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서울 등 각 지역 여순사건유족회 대표들은 제주4·3 추념식 참석과 함께 주요 유적지를 답사했다. 특히 위령공간과 학살터, 수용소 등 현장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 간 아픔을 공유했다. 또한 제주4·3 유족회와 간담회를 통해 공동 추모행사 참여, 유적지 연계 답사 등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배성진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유족 간 교류가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시원 기자

광주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체육대회 성료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의 날'(3월30일)을 기념해 지난 3일 북구 첨단체육공원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정환 복지건강국장, 정석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안효철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 체육 행사순으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2명(시장상 6명, 의장상 6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5명, 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상 5명)에게 수여됐다. 이어진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했다. /변은진 기자